

호원대 K-pop학과 제작 걸그룹 데뷔

1기 재학생 구성 여성 7인조 'Azer(아쩌르)'

호원대학교 혁신사업의 일환으로 제작한 K-pop학과 1기 재학생들로 구성된 여성 7인조 걸그룹 'Azer(아쩌르)'가 지난 4일 Elegante(엘레간테)를 발표하며 데뷔해 화제가 되고 있다.

특히, 대학에서 걸그룹을 제작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학계와 업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걸그룹 'Azer(아쩌르)'는 인류 최초의 여성이란 뜻의 이집트어로써, 당당하고 자신 있게 스스로의 역사를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호원대학교 혁신사업의 일환으로 제작한 K-pop학과 1기 재학생들로 구성된 여성 7인조 걸그룹 'Azer(아쩌르)'가 지난 4일 Elegante(엘레간테)를 발표하며 데뷔해 화제가 되고 있다.

호원대 k-pop학과 1기 학생들 중 오디션을 통해 최종 멤버로 7명(강유경, 김민서, 남미정, 박소연, 장주연, 이재인, 최유진)을 선발해 'Azer(아쩌르)'를 결성했다.

타이틀 곡 Elegante(엘레간테)는 '우아한, 품위있는'이란 뜻의 스페인어로 프랑스어에도 동일한 발음에 유럽 K-pop팬들에게도 더 익숙하게 다가갈 수 있다. 안무는 호원대 k-pop학과 1기 학생들 모두가 참여해 직접 만든 것으로, 학과 학생들의 실력을 더욱 높이 평가했다.

이에 따르면 7명의 멤버 각각의 개성 있는 목소리와 여성스러우면서도 힘 있는 안무가 만난 뮤직비디오는 강인하지만 유연한 여성의 힘을 느끼게 한다. 뮤직비디오를 공개한 지 3일 만에 유럽지역 K-pop사이트에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로 소개되어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제작에는 전설의 보컬그룹 빅마마의 리더였던 신연아 교수가 K-pop학과장으로서 참여해 모든 과정을 준비하고 진행했다.

신 교수는 "학교 안에서는 학우들과 함께 행복하게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의 기쁨을 우리 학생들이 맛보길 바란다"며, "이번에 데뷔한 'Azer(아쩌르)'의 노력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재)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은 9일 팔복예술공장 세미나실에서 전주대학교 링크플러스(LINC+)사업단(단장 주송)과 예술기업 육성 및 예술인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예술기업 육성·예술인 역량 강화 '맞손'

전주문화재단-전주대 링크플러스 사업단, 업무협약

(재)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은 9일 팔복예술공장 세미나실에서 전주대학교 링크플러스(LINC+)사업단(단장 주송)과 예술기업 육성 및 예술인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전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기초예술의 산업화를 위한 아이템 개발, 기술 지원, 마케팅, 유통 과정을 적극 지원해 지역예술인들의 경쟁력 확보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예술인 창업 및 예술

기업 육성 지원을 위한 공동기획 및 추진 ▲지역의 산업 리더를 위한 예술 인문학 교육 사업 상호 협력 ▲기초예술 진흥과 예술인 역량 강화를 위한 상호 협력 등이다.

백옥선 대표이사와 주송 단장은 "양 기관의 업무협약을 통해 기초예술이 예술산업으로 성장·확대해 나아가는 초석을 마련하고, 지역의 예술 산업계에 혁신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문화관광재단 이기전 대표이사,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동참

전북문화관광재단 이기전 대표이사가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이번 챌린지는 어린이 보호 문화 정착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릴레이 챌린지에 지목된 참여자는 어린이 교통안전 구호인 '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이 쓰인 풋말을 들고 사진을 찍은 후 공식 SNS 계정에 게시하면 된다.

전북생물산업진흥원 김동수 원장의 지명으로

릴레이에 참여한 이기전 대표이사는 다음 주자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서현석 대표, 한국전통문화전당 김선태 원장,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이윤애 센터장을 지목했다.

이기전 대표이사는 "이번 릴레이 챌린지를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공감대가 지속적으로 형성되길 바란다"며, "우리 재단이 어린이들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한벽문화관, 문화가 있는 날 공모 '떠나요, 힐링 산책' 선정

전주한벽문화관(관장 성영근)은 문화가 있는 날 공모에서 '떠나요, 힐링 산책'이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고 코카카(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이하 코카카)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전국 문화회관이 코카카의 지원을 통해 다양한 공연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번 사업 선정으로 2,1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아 총 6회에 걸쳐 공연예술을 선보

일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제목 '떠나요, 힐링 산책'에서 느껴지듯 팬데믹(pandemic) 일상에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준비한 프로그램으로써 '센세이션 브라스', '소리극단 도체비', '벼리 국악단', '소리문화창작소 신', '김성수 모던 재즈트리오', '파르베' 등 다양한 공연예술단체들의 선보이는 편안하고 섬세한 감성을 만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각 단체는 각기 다른 매력의 공연을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마지막 수요일이 포함된 주간에 한벽공원에서 실현할 계획이며, 자세한 일정이 확정되면 재단 및 문화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할 계획이다.

전주한벽문화관 성영근 관장은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이 공연예술인에게는 재능을 선보일 수 있는 멋진 기회가, 시민들에게는 마음 한편 우울감과 관태감을 털어낼 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모사업에 적극 지원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문화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사샤 나스피니 소설 '불만의 집' 출간

대중성·문학성 갖췄다는 평가 함께 출간 2개월 만에 넷플릭스 드라마 제작 결정

이탈리아 문단의 기대를 한 몸에 받은 극작가이자 소설가 사샤 나스피니의 소설 '불만의 집'이 출간됐다.

소설은 토스카나 지방 어딘가에 위치한 상상 속 마을 '데 카세'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이야기다.

2차 대전 때는 독일군과 파르티잔의 대치로 아수라장이 됐던 '데 카세'는 현재 가난한 탄광 마을이다. 이런 영향으로 마을 사람들은 외지인을 배척하고 이웃을 불신한다.

"은퇴한 광부, 디보 발렌티", "게으름뱅이, 필리포 넬초니", "점쟁이, 그라치엘라 세니" 등 마을의 한 사람씩 소개하며 마을에서 벌어지는 저주와 같은 죽음과 살인을 풀어나간다.

병든 아내를 두고 다른 여인을 마음에 둔 남자, 운명적 사랑을 꿈꾸는 소녀, 사디스트 의사, 살인 후 신분을 위장해 사는 남자, 딸을 이용해 팔자를 고치려는 어머니 등 다양한 인물

군상이 등장한다.

이들의 사연은 얽히고설켜 한 인물의 시선에서 풀이됐던 사연이 다른 인물의 시선에선 정반대의 분위기로 전개되기도 한다.

작가는 속고 속이고, 죽이고, 훔치고 사기 치며 완성되는 마을의 모습에서 이탈리아의 역사와 사회적 분위기, 한계와 모순 등 비판적 시선을 드러낸다.

강렬한 인상으로 현지에서 널리 알려지고 호평받은 작품이다.

대중성과 문학성을 모두 갖췄다는 평가 함께 출간 2개월 만에 넷플릭스 드라마 제작이 결정되기도 했다.

작가는 "사소한 서사 기제를 통해 위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다. 데 카세는 회색지대를 무대로 인간 존재의 빛과 그림자를 연출하는 일종의 보편적 본능"이라고 설명했다.

/뉴스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